

글로벌 톱 10 도시로 도약할
인천경제자유구역 2.0 시대

4대 비전 선포와 함께
IFEZ, 새 시대로 도약하다

선도자에서 **혁신자**로



경유지에서 **목적지·출발지**로



제조·무역에서 **기술,문화 산업 경제**로



글로벌 톱 10 도시로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VISION

IFEZ JOURNAL

2025. 3~4 VOL.122

ifez

2025 03+04 VOL.122

ifez Journal

Age Of Vision

밸류업(Value Up)과
혁신성장(Innovation Growth)
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Focus

혁신·가치창출 IFEZ 2.0
시대로의 도약
IFEZ, 미디어아트로 미래를 열다

Key Project

글로벌 TOP10 도시를 향한
IFEZ 2.0 시대
중점사업 살펴보기

Special Interview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그레고리 힐 대표를
만나다

Contribution

투자유치 협찬산중,
과감한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Special Ganghwa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2.0시대

Age of New Vision



Vol.122



www.ifez.go.kr/journal

인천경제자유구역 매거진
제122호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5년 3월 21일
발행호
통권 제122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아트센터미디어과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IFEZ저널 웹진
ifez.go.kr/journal



GO! 웹진
www.ifez.go.kr/journal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VER STORY
IFEZ 2.0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글로벌 톱 10 도시로 한걸음 더
도약할 IFEZ의 New Vision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2
Contents
03+04
목차

BUSINESS



04
Age Of Vision
밸류업(Value Up)과
혁신성장(Innovation Growth)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10
Focus
혁신·가치창출 IFEZ 2.0 시대로의 도약
IFEZ, 미디어아트로 미래를 열다



14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18
Key Project
글로벌 톱 10 도시를 향한
IFEZ 2.0 시대 중점사업 살펴보기

WITH US



20
Special Interview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그레고리 힐 대표를 만나다

24
Info
숫자로 보는 IFEZ : 사람이 모이는 도시

28
Contribution
투자유치 접점산중,
과감한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LIFE



30
Special Ganghwa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32
Notice
Insight in site,
IFEZ



34
Trip
코스따라 즐기는
IFEZ 당일치기 여행
<송도 편>



38
Culture
Center of Art,
아트센터 인천

40
Mice
송도 컨벤시아
ISSUE & CALENDAR

42
Event
일타강사 / 일상 한 컷

value— up.

밸류업^{Value Up}과
혁신성장^{Innovation Growth}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innovation— growth.

2.0시대를 향한 첫 걸음 AGE OF NEW VISION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 IFEZ, 글로벌 톱 10 도시를 향한 2040 비전선포
- 밸류업 전략과 혁신성장 전략으로
2.0시대 새로운 미래상 제시

IFEZ(청장 윤원석)는 갯벌 매립과 도시 발전을 이룩하며 1.0 시대를 이끌어왔다. 이제 이를 넘어, IFEZ는 2.0 시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개청 21주년을 기념하며 윤원석 청장은 ‘2040 비전 선포식’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4대 비전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자에서 혁신자로!** 이제 IFEZ는 선도자의 역할을 넘어, 혁신을 주도하는 도시로 변화하고자 한다. **둘째, 관문 경유지에서 목적지·출발지로!** 또한 관문 경유지로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목적지이자 새로운 출발지로 자리 잡고자 한다. **셋째, 제조·무역 기반에서 기술·문화 산업 경제로!** 기존의 제조와 무역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기술과 문화 산업이 주도하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넷째, 글로벌 톱10 도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톱10 도시로 성장하는 것까지, 4대 비전을 제시하며 2.0시대로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다면, 이제 IFEZ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IFEZ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밸류업(Value Up)’ 전략**이다. 기존 개발 모델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4대 비전을 실행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혁신성장(Innovation Growth)’ 전략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IFEZ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을 활용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IFEZ 2040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value— 밸류업 up.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밸류업(Value Up)’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Age of New Bio!

기존의 제조 기반에 머물러 있던 바이오 산업을 연구 중심으로 확장하여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약 개발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첨단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Age of New Project!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톱 10 도시에 걸맞은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도 6·8공구에 위치한 ‘아이넥스’는 글로벌 무역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종 지역의 항공복합도시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Age of New Network!

IFEZ는 세계와 한국을 잇는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상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한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국제회의와 전시산업(MICE)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IFEZ는 기존 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하려 한다.



innovation— 혁신성장 growth.

밸류업 전략과 함께, 윤원석 청장은 IFEZ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성장 전략으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넷째, Age of New FEZ!

경제자유구역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강화도 남단 지역에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은 복합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과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마지막, Age of New Culture!

이어 IFEZ는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실내외 스튜디오와 같은 첨단 영상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과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단순히 경유하는 도시를 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목적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화 창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천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IFEZ는 2025년, 2.0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창조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IFEZ JOURNAL FOCUS

① 혁신·가치창출 IFEZ 2.0 시대로의 도약

— 바이오 클러스터·스마트시티·관광산업 등 육성
— 송도·청라·영종 균형발전 도모…
“시민 삶의 질 높이겠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IFEZ 윤원석 청장 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던, 윤원석 청장의 취임 후 1년. 그동안 바이오·스마트시티·K-콘텐츠 등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온 윤 청장은 앞으로 단순한 개발을 넘어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는 ‘IFEZ 2.0 시대’를 열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Q.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A. 지난 1년간 IFEZ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쉽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20년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Q.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는.

A. IFEZ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목표를 초과 달성해 6억 550만 달러를 유치했고, 바이오·스마트 제조·항공·복합물류 등 핵심 산업을 유치했다. 아울러 송도 6·8공구 아이넥스 시티 국제디자인공모 추진, 청라 시티타워 및 코스트코 청라점 착공, 롯데바이오로직스 캠퍼스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Q. 2025년 핵심 정책 방향은.

A. IFEZ는 혁신 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 산업 투자 유치,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단순 개발 중심 성장에서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고, 바이오·인공지능 AI·K-콘텐츠·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과 송도·청라·영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제3연륙교 준공,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청년 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Q.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A. 송도를 ‘글로벌 초격차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확대해 바이오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Q. 스마트시티 발전 계획은.

A. IFEZ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교통 및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 스마트시티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교류를 활성화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겠다.

Q. K-콘텐츠 및 관광 산업 육성 방안은.

A. ‘K-콘 랜드’를 조성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SOM CITY}를 개발해 K-콘텐츠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아울러 K-뷰티,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 산업을 육성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 투자도 확대해 IFEZ를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킬 것이다.

Q. 강화·영종 개발 계획은.

A. 강화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과 화훼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영종을 공항 경제권 중심으로 개발해 관광 및 물류 산업을 강화할 것이다.

Q. IFEZ의 최종 목표는.

A. IFEZ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통해 IFEZ를 세계적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시킬 것이다.

* 본 원고는 뉴스1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② IFEZ, 미디어아트로 미래를 열다 ... 2월 20일 첫 선

— 인천스타트업파크 미디어 설치 사업

준공식 개최

— 대형 미디어 전광판 및 40종의 창의적
콘텐츠로 ‘디지털 도시경관 구현’



스타트업 파크
소개 영상



미디어아트
바로보기

7개월의 대장정이었던 미디어 설치 사업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IFEZ 청장 윤원석은 지난 2월 20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미디어 설치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던 이 사업을 통해 인천스타트업파크 외벽에는 가로 52.8m, 세로 10m의 총 528㎡ 규모의 대형 미디어 전광판을 설치됐다. 또한 환기구 외벽에는 가로 3.84m, 세로 4.18m의 16.05㎡ 규모 서브 미디어가 구축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와 랜드마크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총 40종의 미디어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FEZ의 비전을 담은 콘텐츠 △사계절 변화와 지역 축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영상 △모바일로 접속 가능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 △유명 화가의 화풍으로 IFEZ의 도시경관을 표현한 시 미디어아트, 날씨 및 기후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후시계 콘텐츠 등이다. 특히 시민 참여형 콘텐츠는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운의 뽑기’, ‘숨은 그림 찾기’, ‘반려동물 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IFEZ는 이번 준공식을 시작으로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3월부터는 일별·월별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윤원석 청장은 “이번 사업은 미디어아트 거점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항후 옥외광고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인천의 대표 명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fez News

1

IFEZ, CES 2025 참가기업 간담회 성료



IFEZ 청장 윤원석는 지난 2월 12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CES 2025 참가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CES 2025에 참가한 인천 기업 및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CES 2025 성과 리뷰, 참가기업 우수사례 발표, 성과 공유 및 CES 2026 지원사업 안내가 진행됐다. 퓨처센스(주)와 이엠시티(주)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각각 4건의 업무협약 체결과 글로벌 파트너 확보 성과를 발표했다. CES 2025에는 총 41개사가 참가해 1,031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4억7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으며, 12개사가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원석 청장은 “CES 2026 지원사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

<2025 시정공유회 - 글로벌 톱 10 도시 분야> 시민과 소통하는,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중추 IFEZ

IFEZ 청장 윤원석는 지난 2월 16일 미추홀타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재로 ‘글로벌 톱 10 도시’ 정책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인천도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과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시정공유회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 IFEZ’를 주제로 2025년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이 발표됐다.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학교·글로벌캠퍼스 조성, 스타트업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 클러스터 확장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의료도시로서 K-컬처 콘텐츠 관광 및 첨단 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IFEZ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서, 인천이 글로벌 톱 10 도시로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IFEZ, DB손해보험과 스타트업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협력

IFEZ 청장 윤원석는 인천테크노파크, DB손해보험과 함께 인슈어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스마트 인슈어테크* 혁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IFEZ가 주관하고 인천TP가 운영하는 ‘TRYOUT 실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의 실증 및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특히 DB손해보험은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기반 서비스, 자동 보험 설계, AI 고객 상담 시스템 등과 관련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검증과 사업화 기회를 얻고, DB손해보험은 혁신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슈어테크(InsurTech) : 보험과 핀테크가 결합된 첨단 서비스 분야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기존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



4

IFEZ,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첫 발’

IFEZ 청장 윤원석는 청라국제도시와 강화 남단을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화훼 아시아 허브 조성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6일 열린 세미나에서 네덜란드의 가든 센터 어드바이스 Garden Center Advice 사는 투자의 향서^{LOI}를 전달하며 파트너십 구축 의사를 밝혔다. IFEZ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청라 화훼단지 용지의 입지적 강점을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미래농업 전망, 화훼 유통 허브 구축, 조경 산업 기술 동향, 한국 화훼 수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원석 청장은 “인천이 화훼 유통 및 스마트팜 생산 허브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며,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화훼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IFEZ 홍보관 휴관안내

IFEZ 홍보관이 2025년 3~6월까지 내부 리모델링으로 인해 휴관합니다.

정기휴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매주 월요일

운영시간 평일 10:00~21:00, 휴일 13:00~21:00

5

<2025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포럼>
한국스탠퍼드센터-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공동 포럼 개최

IFEZ 청장 윤원석 는 지난 1월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스탠퍼드센터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 TU Delft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델프트 공대 교수진,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 한국 자동차기술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빌리티가 도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 협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설계를 논의하며, 한국스탠퍼드센터·델프트 공대·연세대·한국자동차기술연구원 간 MOU 체결도 논의 중이다. 또한, 글로벌 연구 자금 확보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 한국유럽연구센터 등도 참여했으며, 포럼 기간 동안 국제 협력 과제 발표, 연구 라운드테이블, 국내 모빌리티 기업 및 기관 방문 등이 진행됐다.



6

인천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
“슈퍼블루 유치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인천시가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뮤지엄 ‘슈퍼블루 코리아’를 유치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정 유정복 는 지난 1월 22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다니엘 돌란 슈퍼블루 CEO로부터 인천 유치 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슈퍼블루는 뉴욕 기반의 유명 갤러리 ‘페이스’가 설립한 몰입형 전시장으로, 2020년 마이애미 개관 이후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인천에 건립될 슈퍼블루 코리아는 아시아 최초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가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적인 뮤지엄 유치는 환승 관광객을 인천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7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에 한 걸음 더”
IFEZ, 자가통신망 활용 교통안전
애플리케이션 가동

IFEZ 청장 윤원석 는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안전 스마트 알리미 송도’ 앱 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완료보고회에서는 주요 기능과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V2N Vehicle-to-Network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운전자 스마트폰에 충돌 위험 및 교통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고 IFEZ와 LG전자가 수행했다. 이에 포스코고등학교 인근 3개 교차로에 객체인식 CCTV 및 광대역 UWB 수신기 등을 설치해 실증을 마쳤으며, 차량·보행자 충돌 경고, 스쿨존 진입 알림, 공사 구간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윤원석 청장은 “V2N 기술을 활용한 앱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해 지능형 교통체계 C-ITS 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8

인천경제청,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IFEZ 청장 윤원석 는 13일 송도G타워에서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K-바이오랩허브 사업추진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협약은 2028년 개관 예정인 K-바이오랩허브의 시범 운영을 기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실험시설 구축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연세대 산학협력관에 8개 스타트업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장비 활용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모집 공고 후 입주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윤원석 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K-바이오랩허브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 IFEZ

글로벌 톱 10 도시를 향한
IFEZ 2.0 시대 중점사업 살펴보기

1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 비즈니스 도시의 새로운 기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도시가 IFEZ를 주목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들의 활동에 최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신산업 테스트베드로서 IFEZ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바이오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를
넘어 세계 바이오 허브로 도약

바이오 산업은 IT, 반도체 산업을 잇는 미래 산업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분야다. IFEZ는 국내 바이오산업 선도기업을 비롯한, 140여 개의 산·학·연 기관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단일도시 기준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운영 및 건립 포함)

1,160,000ℓ

-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세계 1위
- 바이오·헬스케어 밸류 체인 형성



3

첨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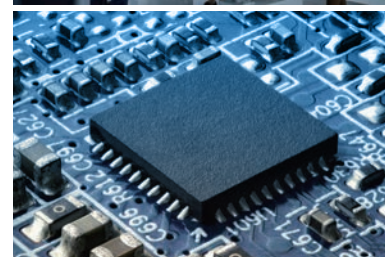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첨단산업을 더욱 확장

4차 산업혁명에는 세계 기업들의 기술 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첨단제조, 반도체, 자동차·부품, 항공, 로봇·드론 등 IFEZ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은 앞선 기술력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융복합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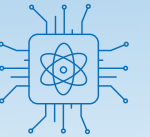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 IFEZ의 기업들

글로벌 기업
50여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
450여개



IFEZ는 바다를 메워 도시를 조성한다는 혁신적인 상상에서 시작됐다. 그 상상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IFEZ. 글로벌 TOP10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IFEZ의 2.0 시대 중점사업을 살펴보자.



5

의료·헬스케어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광까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다

IFEZ는 차별화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남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송도 세브란스, 청라의료복합타운 등의 첨단 의료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휴양과 의료를 연계한 의료 관광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7

문화·관광

문화·예술부터 관광·쇼핑 모든
것이 집적화된 신개념 복합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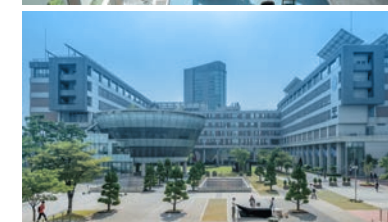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가 조성될 영종국제도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청라시티타워와 신개념 쇼핑몰이 조성될 청라국제도시,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아트센터 인천, 트라이보울, 쇼핑몰까지 가득한 송도국제도시.

8

스마트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IFEZ

IFEZ는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송도·영종·청라 도시 기반시설에 IT 인프라를 구축, 스마트 시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4

글로벌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인재들의 꿈이 자라는 곳

IFEZ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부터 국내외 명문 대학 캠퍼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세계적 교육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 중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50개 국

4,192명(학생)

IFEZ의 대학

6개 국내대학

5개 외국대학

U ASIA CAMPUS
SOUTH KOREA
THE UNIVERSITY OF UTAH

INTRO- DUCING THE GLOBAL CAMPUS IN IFEZ



1850년 미국 유타주에서 개교한 유타대학교는 미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힌다. 송도국제도시에 자리잡은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2014년 9월부터 본격적인 인재양성을 시작해서 현재 게임학, 도시계획학,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영화영상학 등 9개 학과가 있다.



IFEZ 내 글로벌캠퍼스를 만나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편>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재학생들은 한국에서 3년 그리고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홈 캠퍼스에서 1년간 수학하고 학위를 받는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국제적, 역사적,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있는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국제협력특보는 그레고리·힐(Gregory C. Hill) 아시아캠퍼스 대표를 만나 개교 11년째를 맞는 유타대 현황과 전망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SPECIAL
INTERVIEW

신용석 유타대학교가 인천 송도에 아시아캠퍼스를 개교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레고리·힐 유타대는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학생들과 협력하여 연구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아시아캠퍼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중심지로서, 국제 교육과 연구 협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FEZ 내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설립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유치하여 글로벌 학문 허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타대 역시 이러한 비전에 동참하여 아시아캠퍼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타대는 한국 출신의 저명한 화학자 이태규 박사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으며, 그의 학문적 업적과 한미 교육 교류에 대한 기여가 유타대와 한국 간의 강한 유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글로벌 교육 확대라는 목표가 맞물려, 유타대는

인천이라는 전략적 거점에서 아시아캠퍼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석 이태규 교수는 어떤 학자였었나요?

그레고리·힐 1948년 유타대 교수로 부임한 이태규(1902~1992) 박사는 1955년 헨리 아이링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비뉴턴 유동이론』으로 1965년 노벨상 추천위원에 위촉되고 4년 후에는 노벨상 후보가 되어 한국의 위상을 높인 분입니다. 광복 전에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광복 후에는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이 박사는 1948년 유타대 교수로 부임해 반응속도론과 액체이론 등으로 세계적인 화학자로 국제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는 학자였습니다. 철순을 넘긴 나이에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로 귀국하여 박사 12명과 석사 24명의 후진을 양성해 한국 화학의 초석을 다진 분이기도 합니다.

신용석 유타대 아시아캠퍼스의 9개 학과 중 게임학과가 특이합니다.

그레고리·힐 우리 대학의 게임학과에서는 비디오게임과 e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각종 게임의 설계와 개발에 중점을 두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타대 게임학과에서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 디자인설계, 비디오 게임, 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를 연마합니다. 실제로 유타대 게임학과는 미국 전체 대학 중 상위 3위 안에 속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프린스턴 리뷰(Princeton Review)가 발표한 게임 전공 대학 가운데 전 세계 공립학교 부문 학부 1위, 대학원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은 구글, 어도비, 애플, 닌텐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에픽게임즈, 워너브라더스, 드림웍스 등 IT 및 게임·미디어 기업에 취업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국제협력특보



그레고리·힐(Gregory C. Hill)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대표





유타대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siacampus.utah.edu/>

신용석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전공은 어떤 학과인가요.

그레고리·힐 모든 학과들이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한국 영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화영상학과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학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독립영화감독으로 활동하거나,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스튜디오에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석 유타대 아시아캠퍼스의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떤가요.

그레고리·힐 아시아캠퍼스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홈 캠퍼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영어 능력과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리더십, 잠재력, 그리고 과외활동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우리 대학은 또한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관점을 지닌 학생을 주목합니다. 유타대학교가 인천에 아시아캠퍼스를 설립한 이유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목표의식과 삶의 경험, 리더십, 그리고 개인적인 비

전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목표를 통해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학생 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신용석 최근 통계수치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신입생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요.

그레고리·힐 외국 학생들 중 인천 아시아캠퍼스를 지원하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한국에서의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 몽골,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최근 외국인 신입생 비율이 40%에 도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지역과 국가 출신의 학생들을 예상하면서 지역사회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용석 오는 6월부터 델타 항공사가 유타대가 자리 잡고 있는 솔트레이크시티와 인천을 연결하는 직항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직항 항로가 개설된 배경과 아시아캠퍼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전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레고리·힐 델타 항공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인천과 솔트레이크시티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델타 항공의 주요 허브 도시로, 미국 서부 및 남서부 지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직항 노선은 미국 유타대학교와 아시아캠퍼스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학생 및 교수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솔트레이크시티가 위치한 유타주는 ‘실리콘 슬로프’라 불리는 기술·비즈니스 중심지로, 이번 항로 개설을 통해 한국과 유타 간 경제·산업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타대학교의 테일러 랜달 총장은 2023년 11월 한국 방문 당시, 쿠팡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직항 노선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이후 유타주 정부와 델타 항공 간 협력을 통해 항공편 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직항편은 양국 간의 학술, 연구, 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용석 힐 대표께서 인천 아시아캠퍼스 대표로 부임하신지 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레고리·힐 솔직히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더욱 국제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사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족이 입주했을 때만 해도 간단한 인사를 하는 주민들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해 우리 아파트에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생겼는데 함께 운동하는 분들과는 모두 친구가 되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영어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저



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대화합니다.

신용석 끝으로 한국 교육부와 인천시에 요망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레고리·힐 먼저, 외국 대학에 대한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 장학금 혜택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캠퍼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에는 인천 연수구와 유타주의 코튼우드 하이츠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공원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연수구 도시계획팀과 우리 학교 도시계획학과 학생들이 코튼우드 하이츠 팀과 협력하여 공원을 설계하고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턴십 및 산학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기대합니다.



IFEZ 내 인구통계 현황 살펴보기

숫자로 보는 IFEZ :
사람이 모이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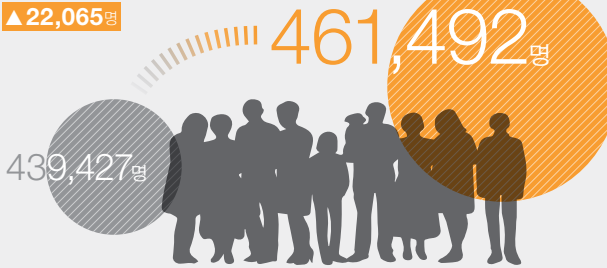
(2023년 12월 vs 2024년 12월 기준현황 비교)

1. 1년 사이 IFEZ의 총인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꾸준한 발전을 이어오는 곳, IFEZ. 2023년 12월과 2024년 12월의 IFEZ 내 인구통계현황을 살펴보면, 1년이 지난 현재 총인구는 ▲22,065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송도 ▲10,821명, 영종 ▲9,428명, 청라 ▲1,8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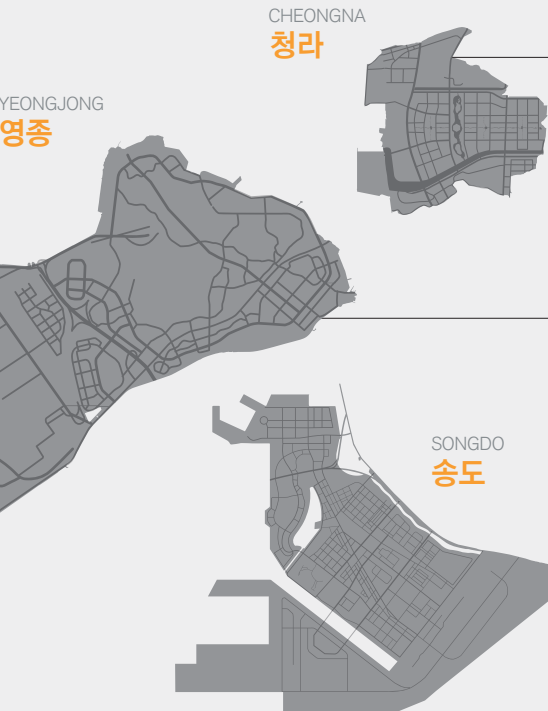
IFEZ의 성장은 사람들의 꿈과 삶이 함께 자라는 과정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IFEZ.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며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IFEZ의 인구와 비례해 커지는 도시의 가능성을 만나본다.

IFEZ 내 총인구



IFEZ 내 지역별 인구

(2023년 12월 vs 2024년 12월 기준)



계	114,511명	116,327명	▲1,816명
남자	56,900명	57,728명	▲828명
여자	57,611명	58,599명	▲988명
세대	43,315세대	44,377세대	▲1,062세대

계	117,469명	126,897명	▲9,428명
남자	60,846명	65,522명	▲4,676명
여자	56,623명	61,375명	▲4,752명
세대	55,809세대	60,368세대	▲4,559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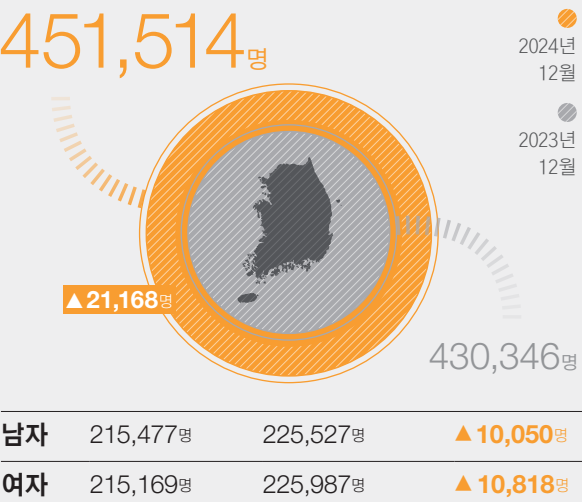
계	207,447명	218,268명	▲10,821명
남자	101,875명	106,970명	▲5,095명
여자	105,572명	112,298명	▲6,726명
세대	75,854세대	79,975세대	▲4,121세대

2. 그렇다면, IFEZ의 한국인 인구는요?

(2023년 12월 vs 2024년 12월 기준)

IFEZ 내 한국인 인구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인구는 ▲21,168명이 증가했으며, 그 중 남성 인구는 ▲10,050명, 여성 인구는 ▲10,818명 증가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송도 ▲10,090명, 영종 ▲9,080명, 청라 ▲1,698명이 증가했다.

IFEZ 내 한국인 인구



IFEZ 내 지역별 한국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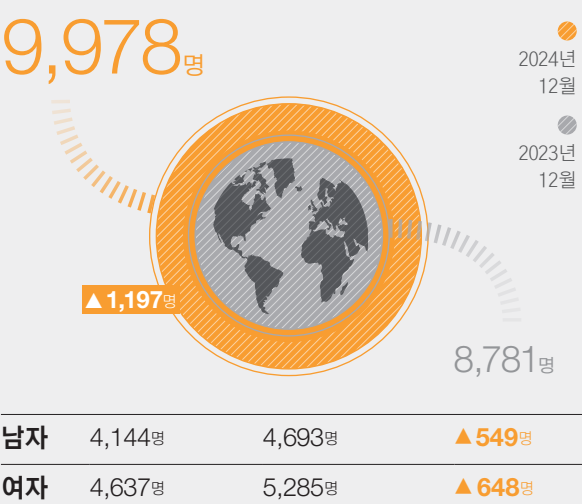
송도	202,274명	212,364명	▲10,090명
남자	99,505명	104,270명	▲4,765명
여자	102,769명	108,094명	▲5,325명
영종	115,138명	124,218명	▲9,080명
남자	59,710명	64,257명	▲4,547명
여자	55,428명	59,961명	▲4,533명
청라	113,234명	114,932명	▲1,698명
남자	56,262명	57,000명	▲738명
여자	56,972명	57,932명	▲960명

3. IFEZ 내 외국인 인구의 경우는 어떤가요?

(2023년 12월 vs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인구 또한 큰 증가율을 보인다. 2023년 12월에 비해 ▲1,197명의 외국인이 IFEZ로 유입되었으며, 그 중 남성 인구는 ▲549명, 여성 인구는 ▲63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송도는 ▲731명, 영종 ▲348명, 청라 ▲118명이 증가했다. 이렇듯, IFEZ 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FEZ 내 외국인 인구



IFEZ 내 지역별 외국인 인구

송도	5,173명	5,904명	▲731명
남자	2,370명	2,700명	▲330명
여자	2,803명	3,204명	▲401명
영종	2,331명	2,679명	▲348명
남자	1,136명	1,265명	▲129명
여자	1,195명	1,414명	▲219명
청라	1,277명	1,395명	▲118명
남자	638명	728명	▲90명
여자	639명	667명	▲28명

ATTRACT

INVESTMENT



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 첩첩산중, 과감한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정치·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을 달성했다. 새로운 의제와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6억584만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끌어내 누적으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정치·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액을 달성했다. 새로운 의제와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6억584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끌어내 누적으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경자법의 혜택을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앵커기업을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와도 택스 인센티브^{세금 감면} 등 유인책이 약하니 ‘경자법이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미국 영상·미디어 기업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영상제작 시 글로벌 수준의 세금 감면 또는 세액 환급^{Tax Rebate} 요청이 있었다.

또한 한 최고경영자는 ‘투자를 저울질하는 해외 기업에는 법인세율이 투자 환경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법인세나 소득세율 체계도 해외 자금 유치를 가로막는다고 귀띔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시 27.5%}로 경쟁국인 홍콩 16.5%과 싱가포르 17.0%, 대만 20.0% 등보다 크게 높다. 2018년 법인세율 25% 구간이 신설된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하는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7위에서 39위로 추락했다.



TAX REFORM



싱가포르는 세금 경쟁력과 친기업 환경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태지역본부가 대부분 진출해 있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 가능 요소가 폭넓고 범위도 유연하여 법인세를 0%까지 낮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지역본부 지정제도 도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왔으나 높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으로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 특히 지역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주별 인센티브를 허용해 기업들이 다양한 세액 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미국 텍사

스주는 법인세·소득세와 상속세까지 없는 덕에 미국 내에서 대기업 본사가 가장 많고 글로벌 대기업의 진출도 많이 이뤄지는 곳으로 우뚝 섰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글로벌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외국인 직접투자 6억달러 목표를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

세금 부담은 결국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이를 경감해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외자유치에 탄력이 붙어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2025년, 기존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외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강화남단이 바로 그 대상지.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일대 약 20.26km² 규모다. 인천시와 IFEZ는 해당 지역을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으로 강화군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정 방식이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되면서다.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 산업부 공식 접수

인천시와 IFEZ는 지난해 12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 국제도시 개발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접수했다. 이어 12월 17일 산업부가 주관한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 해당 계획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는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 공식 절차로,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개발 대상지는 강화군 화도면, 길상면, 양도면 일대 약 20.26km² 약 600만 평에 이르며, 사업은 1단계 10.03km²와 2단계 10.23km²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IFEZ는 202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구역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산업 메가클러스터 조성

IFEZ가 발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강화남단에는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해양치유지구, 친환경 웰니스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 화훼단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도 들어서며, 송도·영종·강화를 연결하는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젝트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강화남단을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속화되는 개발계획

최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이 기존의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인천시와 IFEZ는 강화남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강화남단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속도 붙는 교통 인프라 확충

강화남단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도와 강화를 연결하는 서해



MINI INTERVIEW

강화국제도시를 꿈꾸는
강화사람들을 만나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설계할 것.”



윤채린 강화도민, 30세

강화도는 그동안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 다소 소외된 면이 있었어요. 이번에 강화남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강화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전재훈 바이오 산업체 대표, 45세

강화남단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된다면 첨단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이상진 도시개발 전문가, 3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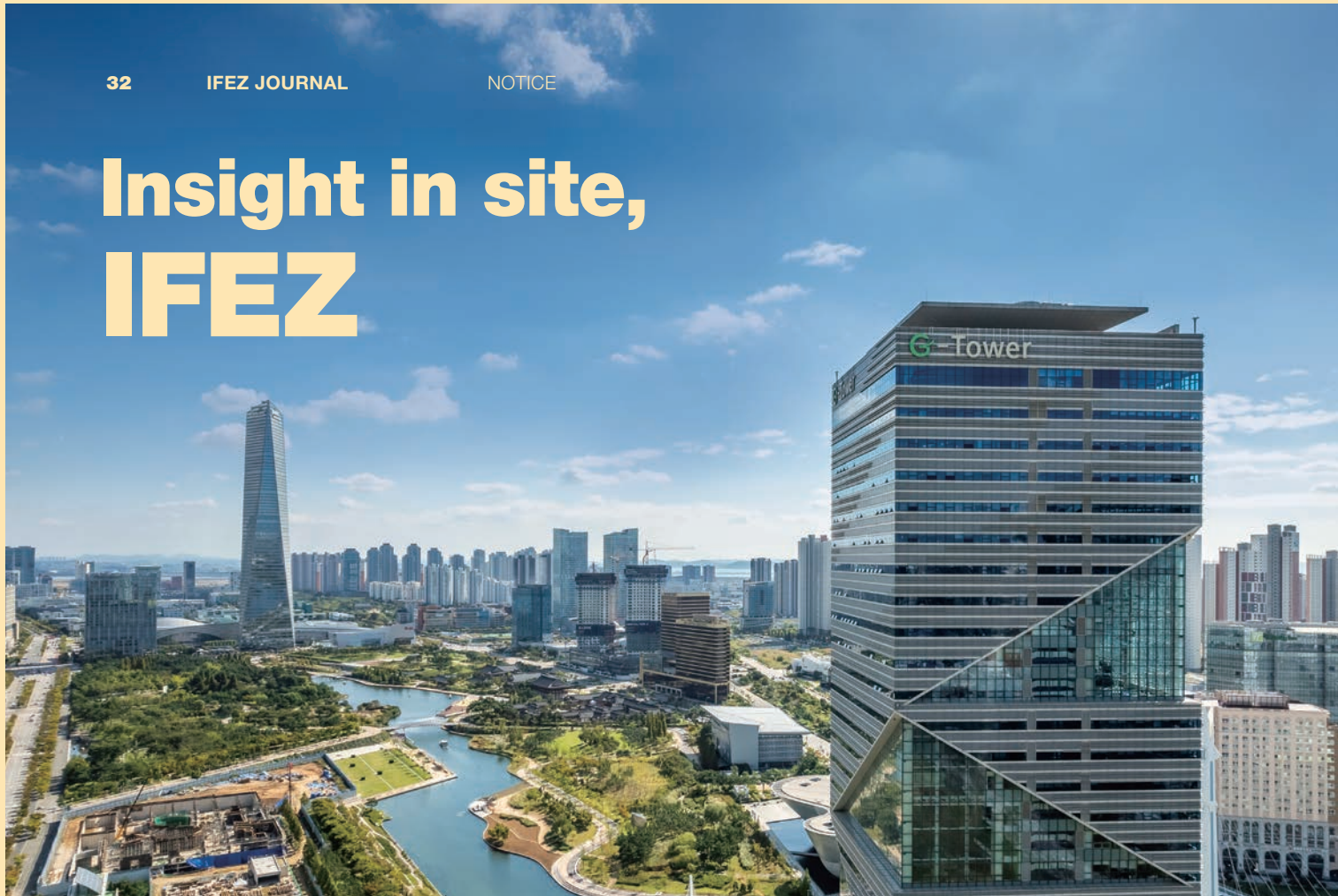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송도·영종·강화로 이어지는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은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남북평화도로를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시의회 연구단체는 수도권과 강화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강화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망 확보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다

IFEZ는 강화남단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개발계획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는 이를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FEZ 관계자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Insight in site, IFEZ



IFEZ는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이자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유엔(UN) 기구부터 국제기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글로벌센터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IFEZ의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소식을 전한다.



① 윤원석 IFEZ 청장, 취임 1주년 - 'IFEZ 2.0' 시대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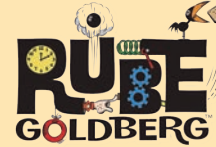
2024년 2월 취임한 윤원석 IFEZ 청장은 “지난 20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20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밸류업’과 ‘혁신성장’의 투트랙 전략을 담은 IFEZ 2040 비전 선포를 분수령으로 IFEZ 2.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전했다. 실제 IFEZ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인천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

증한 결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일하다. 올해 인천경제청은 ‘세계초일류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로 글로벌 톱 10 도시 발판 마련’, ‘도시 균형 및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삶의 질을 제고하는 시민행복도시 건설’까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톱 10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윤원석 IFEZ 청장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FDI 목표 6억 달러를 초과해 달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성장 동력으로 확실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지속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성장과 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②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루브 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 개최 - 아시아 최초 한국대표 선발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 최초 루브 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 한국대표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루브 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복잡하고 기발한 기계장치를 설계해 서로 겨루는 대회다.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 강화, 협동심 함양, STEAM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기반 융합적 사고, 도전과 성취 등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한국 대표 선발대회는 ‘반려동물에게 먹이주기 Feed a Pet’를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주제에 맞춰 최소 10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계 장치를 만든 뒤, 심사위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것을 소개하고 3차례 시연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7팀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 혜택과 오는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월드 챔피언십의 출전 기회를 얻는다.



루브 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루브 골드버그 머신 콘테스트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복잡하고 기발한 기계장치를 설계해 서로 겨루는 대회이다. 이번 한국대표 선발전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월드 챔피언십의 기회를 얻는다.

③ 한국, 글로벌 기후 문제에 리더 역할 - 세이니 나포 GCF 의장의 평가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GCF’이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금융기구로 녹색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린다. GCF는 현재 1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집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치열한 유치전 끝에 2012년 IFEZ인 인천 송도에 GCF를 유치했다. 한국은 5,000억 원 가까운 재원을 GCF에 매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금을 크게 늘려나가면서 전세계 녹색전

환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한국은 지난 2023년 GCF 공여금액을 기존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세이니 나포 의장은 “대한민국은 기후재원에서 법적 또는 의무적인 재정 지원의 의무가 없는 국가이지만 GCF 운영과 개발 협력을 위한 지원에 원할히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기여에 대해 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뉴스핌



세이니 나포(Seyni NAFO) 녹색기후기금(GCF) 의장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지난 15~20년 동안 녹색 전환을 앞장서서 리드해 온 국가입니다. 한국정부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큰 모범이 되어 준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코스따라 즐기는 IFEZ 당일치기 여행

Chapter 1_ songdo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IFEZ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자. 인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도시역사관, 도심 속 힐링 공간 송도센트럴파크, 그리고 전 세계 문자의 신비를 만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까지! 하루 동안 알차게 즐기는 IFEZ 당일치기 여행, 지금 떠나보자!

나만의 IFEZ 당일치기 코스를 추천해 주세요!

송도, 영종, 청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IFEZ 당일치기 코스가 있다면 마음껏 소개해주세요. 나만의 코스와 사연을 작성해 이름, 주소와 함께 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ifez2021@naver.com

※ 참여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No. 1

Incheon Urban
History Museum

과거와 현재를 만나는 시간, 인천도시역사관

첫 방문지는 IFEZ가 자리한 G타워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특히 한국도 생소한데 인천은 더욱 낯설게 느껴질 거주 외국인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였다. 바로, 인천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공간, 인천도시역사관이다.

이곳에는 흥미롭고 유익한 전시가 가득했다. 역사관은 1층 근대도시관, 2층 인천모형관, 3층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항기 근대도시로 시작해 국제도시로 발전한 인천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1883년 제물포 개항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인천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천도시역사관은 인천이 낯설게 느껴질 IFEZ 거주 외국인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핵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을 방문하면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천도시역사관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 09:00~18:00(매주 월요일 휴무)
- 032-850-6000

No. 2

Songdo
Central Park

도심 속 오아시스, 송도센트럴파크

인천도시역사관에서 과거의 인천을 돌아보았다면, 이제는 송도의 현재와 미래를 느껴볼 차례다.

송도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인 송도센트럴파크는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와 활력을 선사한다. 특히,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정화된 바닷물이 흐르는 수로가 공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센트럴파크를 방문한다면 꼭 즐겨야 할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카약과 문보트 같은 수상레저 활동이다. 고층 빌딩 사이로 펼쳐진 푸른 수목과 잔잔한 물길이 어우러져, 마치 미래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듯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 조성된 정원, 포토존, 휴식 공간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만약 도심 속에서 힐링과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IFEZ가 추천하는 송도센트럴파크와 송도 한옥마을에서 특별한 오후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센트럴파크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No. 3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s

문자의 시간이 새겨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송도센트럴파크 산책을 마쳤다면, 이제는 송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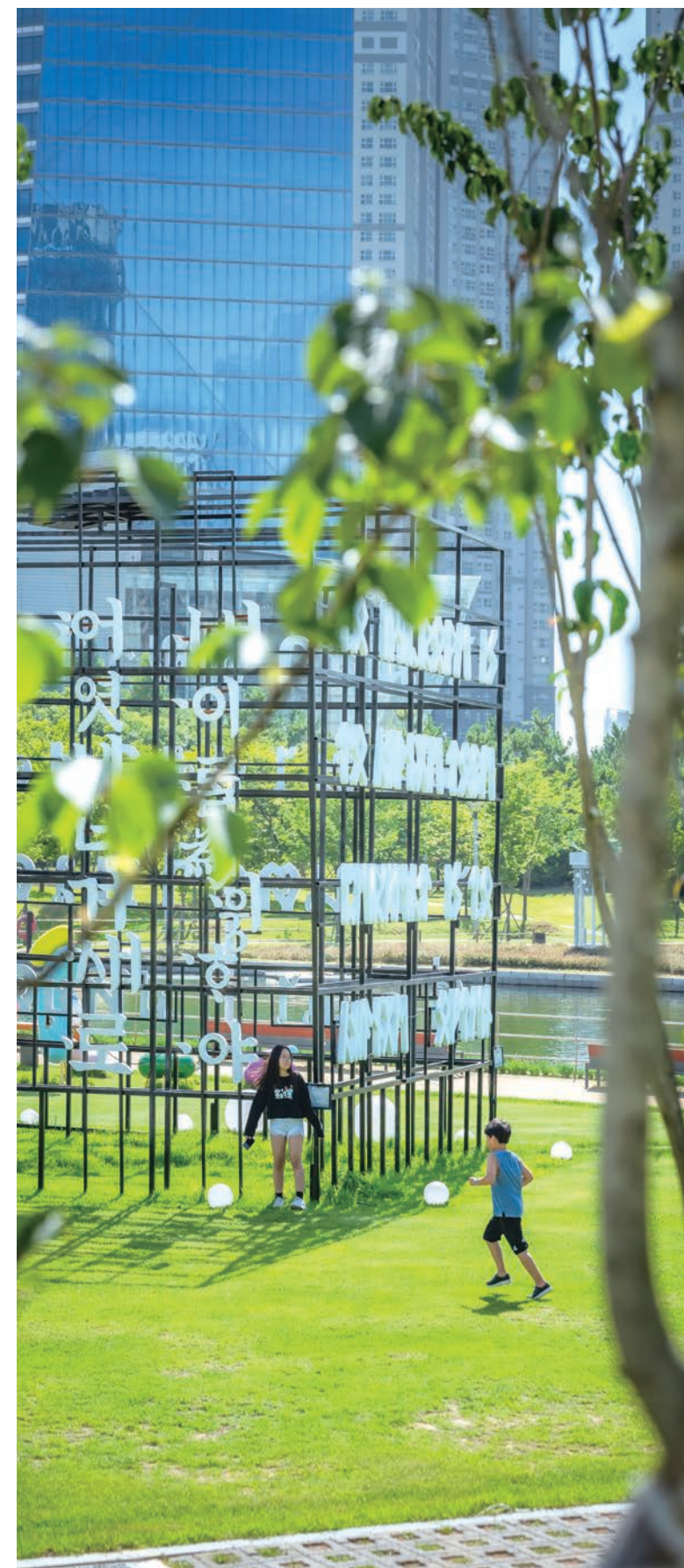
10년이라는 오랜 준비 과정 끝에 2023년 6월, 송도에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문자 특화 박물관인 이곳은 프랑스 상폴리옹세계문자박물관, 중국문자박물관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문자 전문 박물관이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이곳에서는 인류 최초의 문자 발명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전시,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상설전시관에서는 세계 문자와 문자문화, 그리고 문명을 비교 문화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특별전시관에서는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귀스타브 도레 전시가 진행될 예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가 쓰는 문자를 특별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곳에서 문자에 깊이 빠져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17

🕒 10:00~18:00

☎ 032-290-2000



인천 예술의 중심 ‘아트센터인천’. 클래식부터 재즈, 뮤지컬, 무용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관객을 맞이한다.
다가오는 봄, 아트센터인천에는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놓쳐서는 안 될 주요 뉴스와 공연 일정을 지금 소개한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앙투자심사
IFEZ, 인천의 문화·예술 사업 발전을 향한 도전

IFEZ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성과 당위성을 동시에 내세우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문화예술사업 특성상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부족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IFEZ는 인천지역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적극 부각할 계획이다.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의뢰로 조사한 ‘2024년 공연예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공연장 수는 49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 80개 과 대구 74개 보다 현저히 적다. 특히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문화 인프라가 흡수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인천에 뿌리를 둔 공연단체는 148개로, 부산 247개, 대구 184개, 대전 154개 보다도 적다.

또한 단순 공연시설을 넘어 송도국제도시 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문화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IFEZ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은 2018년 완공돼 현재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콘서트홀 1,727석을 갖추고 운영 중이다.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오페라 하우스 1,439석와 예술거점공간인 아트&테크센터를 포함해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CENTER OF ART
아트센터인천

3-5월 아트센터인천 주요 공연

What's on ?

Vivaldi, All Time Favorite

공연일정 3월 30일 (일) 18:0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약 120분
티켓가격 전석 무료



옥탑재즈 II

공연일정 4월 11일 (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약 9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5천 원



콘서트 오페라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공연일정 4월 24일 (목)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티켓가격 VIP석 12만 원, R석 8만 원



히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5_인천

공연일정 5월 4일 (일)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10분
티켓가격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지브리&디즈니 OST 콘서트

공연일정 5월 11일 (일)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티켓가격 VIP석 12만 원, R석 9만 원



작곡가 시리즈 <차이콥스키> II

공연일정 5월 31일 (토) 14: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00분
티켓가격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일상을 특별하게, 아트센터인천 예술교육 아카데미

2025 봄학기 정규강좌

- 미술, 여행이 되다 : 오스트리아 편
- 클래식 라운지 : 바흐 편
- 책이 되는 나의 이야기 : 글쓰기부터 출판까지
- ACI성인합창단 <ON STAGE> 외



예술교육 아카데미
더 알아보기



송도 컨벤시아 ISSUE & CALENDAR



송도컨벤시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 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달의 Convensia!

ISSUE

2026 클라리넷 총회, 송도 컨벤시아서 개최

인천관광공사와 IFEZ가 국내 최초로 세계적인 음악 행사인 ‘클라리넷 총회’의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클라리넷협회가 주최하는 ‘클라리넷 총회’는 전 세계 클라리넷 연주자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아일랜드 더블린과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개최됐으며,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6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30개국에서 약 1,2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클라리넷 총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함으로써 인천과 송도컨벤시아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5 제31회 국제음향진동 학술대회’, ‘2026 국제행동발달연구학회 학술대회’, ‘2027 국제진균학술대회’ 등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도 성공하며 글로벌 학술·문화 행사의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025년 4월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 한국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정기학술대회	3	4	5	6
7	8	9	10	11 ●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행사	12	13
14	15	16 ● 제9회 인천 국제 음절·절단 및 판금·레이저 설비산업 전시회	17	18 ● 핏가죽여행박람회 / 마이펫페어 2025 송도	19	20
21	22	23	24 ● 데이터법 관련 국제학술대회 ● 인천국제유아교육전 in spring	25	26	27
28	29	30				

일타강사

이번 교시는 <MICE>입니다

정보를 찾는 건 귀찮지만, IFEZ는 알고 싶은 당신에게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IFEZ의 모든 것!

오늘의 수업 주제

인천의 대표 MICE 시설인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다양한 전시·회의가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송도컨벤시아’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1교시

송도컨벤시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인천 대표 MICE 시설인 송도컨벤시아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송도컨벤시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14건의 전시·회의를 개최하며, 누적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5,6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송도컨벤시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개관 이래 최초로 흑자 경영을 실현했습니다. IFEZ(청장 윤원석)는 2025년에도 송도컨벤시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국제치안산업대전, 인천아트쇼 등 기존 계획된 주요 전시회 뿐 아니라 2025 APEC 정상회의 연계 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한국뇌신경과학회 학술대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퀴즈 풀고, 선물 받자!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월 5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기한 2025년 4월 11일(금)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참여방법 연락처, 이름, 주소와 정답을 함께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

*당첨자는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 보내주신 분에 한 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이해하는 IFEZ

Q1. IFEZ 송도컨벤시아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IFEZ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14건의 □□·□□를 개최하며,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Q2. 송도컨벤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송도컨벤시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7% 증가했다.
- ② 송도컨벤시아 누적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 ③ 송도컨벤시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주외국인 일자리가 확충된다.
- ④ 2025년에는 기존에 계획된 국내 주요 전시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추억을 공유하는 IFEZ 일상 한 컷

IFEZ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예린
영종


왕산마리나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일몰..♥

#왕산마리나 #노을 #영종

한중호
송도


인천스타트업파크에 생긴 미디어월 너무 멋지네요!

#미디어월 #스타트업파크 #송도

이슬아
영종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영종도 카페는 언제나 옳죠!

#풍경 #오션뷰 #영종

송아름
청라


청라에서 즐기는 캠핑의 낭만이란..!

#청라해변공원캠핑장 #캠핑 #청라

최연주
송도


송도센트럴파크의 맑은 하늘보며 걷기!

#송도센트럴파크 #겨울 #송도

마감 2025년 4월 11일(금) 까지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 정답,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